

“소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못된 사람”

광주 출신 장은진 작가 5번째 장편 ‘날씨와 사랑’ 펴내 여름 배경 사랑 이야기 그려 이효석문학상 등 수상



“우리가 자주 지치는 건 인생은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많은 걸 기다렸다. 오랫동안 솔직한 답장과 용기 있는 고백을 기다렸고, 어제보다 약간은 기쁜 여유를 기다렸고, 절망이 일른 지나기를 기다렸고, 밤잠을 설쳐가며 이야기의 첫 문장을 기다렸다. 기다림의 대가는 섭섭하지만 무엇도 남는 게 없는 것보다 여전히 기다림의 목록을 지녔음에 감사하며 하늘을 본다. 비록 지치더라도 기다림은 희망이기도 하니까.”

중앙일보 신인문학상, 문학동네 작가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한 광주 출신 장은진 작가(47·사진). 장 작가가 이번에 다섯 번째 장편 ‘날씨와 사랑’을 펴냈다.

책을 펴보다 말고 다른 무엇보다 ‘작가의 말’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작가는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기다림의 목록을 지녔음에 감사한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은 있다. 오늘을 견디는 힘은 그 기다림 때문인지 모른다. 비록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일 테니까.

처음 장 작가를 알았던 것은 지난 2004년이였다. 당시 그는 중앙일보 신인문학상에 ‘키친 실험실’이 당선돼 유명인사가 됐다. 강렬하면서도 흡인력 있는 문체, 간단치 않은 소재를 예리한 시각으로 그린 소설은 당시 문壇들 사이에 회자가 됐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렀다. 그 사이 작가는 모두 5권의 장편과 3권의 창작집을 펴냈다. 2년에 한번 꼴로 작품집을 발간한 셈이다. 간혹 작품집 발간 소식과 함께 문학동네작가상, 이효석문학상과 같은 유수의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왔다.

“어느 날은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가, 글이 뜻대로 써지지 않을 때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만난 못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운데도 미워할 수 없고, 손에서 놓고 싶는데도 놓을 수 없는, 애증관계인 것 같습니다.”

출간 소식을 듣고 건넌 통화에서 작가는 소설을 그렇게 묘사했다.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았다. 예전의 어떤 작가는 문학에 대해 ‘목을 매달아도 좋을 나무’라고 고백했었다. 그 작가의 고백도 강렬했지만, 장 작가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말도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작가가 이전에 펴낸 ‘날짜 없음’이라는 장편은 겨울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였다. 그에 반면 이번 장편은 “여름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다. “여름이 가기 전에 보편적인 사랑을 주제로 한 서사를 다뤄보고” 싶었다는 것이 이번 작품을 발간하게 된 이유다.

“2019년 초 두 달에 걸쳐 초고를 완성했으니 발간하기까지 2년 반이 걸린 셈이네요. ‘책 한 권을 쓰고 내는 일이 참 어렵구나’라는 걸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설은 아득하고 막막한 장면에서 펼쳐진다. 가

출한 어머니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해주는 장갑 공장 일에 청춘을 보낸다. 어느 날 그녀에게 우산을 쓴 남자가 다가온다. 맑은 날씨에도 우산을 쓴 남자는 해주에게 새로운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태양이 작열하는 광장에 나와 우산을 쓴 채 서 있는 남자를 사람들은 ‘우산씨’라고 부른다. 해주는 그에게 다가가 그가 세상에 내보이는 우산 하나만큼의 거리를 좁혀보려 한다. 두 사람은 점차 호감을 갖게 된다. 의지할 곳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온 해주에게 그는 남다른 존재가 된다.

장 작가는 “꿈을 갖지 못했거나 포기해야 했던 젊은 청춘들이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사막처럼 덥고 먼지가 날리는 녹록지 않은 나날이지만 그래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오늘의 소설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추세다. 시대 흐름이 빠른 것처럼 작품 양상이 변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 또한 어느 때는 “트렌드에 따르는 글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러나 트렌드를 쫓아 글을 쓰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저 제가 쓰고 싶은 글을 묵묵히 써 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며 중앙의 출판계나 문단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문학 또한 블랙홀처럼 서울로 집중된다.

“작가들과 교류 시간을 갖기도 어렵고 인터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틈 잡았던 인터뷰가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했어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구요. 좋은 점이라면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소설 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가라면 ‘골방’에서 작품을 꾸준히 써내는 게 중요하다. 현재 작가는 따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창작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소설쓰기에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향후 계획도 비교적 간단하다. 발표한 단편을 모아 소설집을 낼 계획이다.

“작가에게 계획이란 늘 두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한편으론 무조곤 쓰는 거지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 vs 창작 歌舞樂’

루트머지 정기연주회 12일 북구문화센터

한국의 전통음악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선보여온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가 제12회 정기 연주회 ‘전통 vs 창작 歌舞樂(가무악)’을 준비했다. 12일 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이번 음악회는 광주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북구문화센터 후원을 받아 기획됐으며, 가 야금 산조부터 무용,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예술과 창작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특히 공연 제목처럼 전통 작품과 창작 작품이 대

결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레퍼토리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춘향가’ 중 ‘속대머리’, ‘사물놀이’, ‘태평무’, ‘모듬북’, ‘심청가’ 중 ‘방아타령’,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 등이다.

공연에는 가야금 연주자이며 그룹 대표인 홍윤진과 건반 김현화, 베이스 조중현, 보컬 윤혜림, 국악퍼커션 김종일, 해금 이노영, 가야금 김다희, 국악보컬 정소정이 출연한다.

민속타악연구회, 로운무용단, 가야금 병창 이유리·배유경·김민지, 소리 박해라, 진행 박혜림 등도 무대에 오른다. 무료 관람. 문의 062-444-076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루트머지 제12회 정기연주회 ‘전통 vs 창작 歌舞樂(가무악)’이 12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광주관광재단 ‘K-POP 팬아트 공모전’

광주관광재단은 K-POP 한류 열풍에 발맞춰 ‘2021 K-POP 팬아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제이홉(BTS)의 전 세계 팬들의 메시지로 만들어져 화제가 된 광주 총장로 K-POP 스타의 거리 ‘홀덤펀드 조형물’에 이어 광주만의 K-POP 관광 콘텐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각각 다른 주제로 총 2회 진행할 예정이며, 첫회는 방탄소년단(BTS)을 주제로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공예작품 등 다양한 팬아트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선정작은 금남로에 조성 예정인 K-POP 스타의거리 팬존 3에 전시해 전 세계 K-POP 팬들이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K-POP 관광 콘텐츠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 참조.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성악콩쿠르 1차 예선 44명 통과

본선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성악콩쿠르 1차 예선에 남자 24명, 여자 20명 등 모두 44명이 통과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7일 정음성악축제 ‘2021 광주성악콩쿠르’ 1차 예선 비대면 영상심사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44명이 1차 예선을 통과했으며 광주·전남 출신도 3명이 포함됐다.

1차 예선에서는 남자 69명, 여자 52명 등 총 121명이 접수했으며 43개 대학에서 국내외 우수한 실력의 성악도가 참여했다.

서울 경기지역이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전남지역 17명, 아프리카립음악원, 맨해튼 음대 등 유학생들도 포함돼 있었다.

2차 예선은 오는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대면 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본선은 오는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음성 선생 가곡 중 12곡이 과제곡으로 지정

돼, 타 지역 참가자들에게 광주를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금은 1위 1500만원, 2위 1000만원, 3위 500만원 그리고 특별상을 포함해 총 3800만원이 수여된다. 최고입상자에게는 ‘정음성악축제’ 공연 기회도 주어진다. 본선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10명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공개 발표회로 진행된다.

한편 본선은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예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사전예약 QR코드를 스캔 후, 사전링크(http://naver.me/Fk565WuI)를 통해 접수가능하다. 문의 062-670-7442, 791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국어문화원, 학술 전문용어 순화 정비

전남대 국어문화원(원장 양영희교수·국어교육과)은 이공계, 사회계열 등 12개 학술 분야 전문 용어를 순화·정비하는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1년 ‘전문 학술용어 정비 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국어문화원은 5000여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2년 5월까지 국어학회와 함께 (한)국어문화

의 전문 용어를 정비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립국어원 공공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에 올려 서비스 될 예정이다.

한편 양영희 원장은 “이번 사업은 외래(국)어 사용이 적지 않은 학계에 바르고 순화된 (한)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062-530-031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